



호박 출하 한창
니주시 봉황면 철천리에서 농민들이 호박을 수확하고 있다. 호박은 15kg 한 상자당 1만 2천원선에 각박동 농산물시장 등지로 출하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물가 성장 4% 올려잡고 낮춰잡고

### 재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고육책

기획재정부가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대로 묶기는 어렵다고 판단, 다음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상승률 목표치를 4%대로 제시할 전망이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제시한 6% 전후에서 대폭 후퇴한 4%대 후반으로 예측, 물가와 성장률 목표치가 모두 4%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어디까지나 목표치로 고유가 등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칫 실패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성장률 수치를 뛰어넘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놓기 위해 현재 경제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특히 소비자 물가의 경우 국제유

가 급등의 영향이 예상 외로 심하게 3%대로 억제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상반기 물가가 4%를 넘어섰고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당분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추세도 만만찮아 어쩔 수 없이 4%대 목표치를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물가목표치는 지난 3월 제시했던 3.3%보다 훨씬 높은 4% 초반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초 대선공약으로 연간 7% 성장을 주장했던 정부는 이번 발표에 연간성장률 목표치도 현실을 대폭 반영,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미 23일 한 케이블 뉴스채널과의 인터뷰에

서 "우리나라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전체로는 경제성장률을 4% 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몰려 가속화되면서 올해 유가전망이 배럴당 90달러대 전후에서 130달러 전후로 급등, 성장률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두달동안 쇠고기 파동으로 청와대 비서진이 전면 개편되고 개각도 앞두고 있는 등 큰 혼란을 치르며 여전히 촛불민심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만큼 '되지도 않을 목표'라는 비난을 받는 성장률은 차제에 포기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도 24일 한국 정부와 가진 연례회의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 포인트 낮은 4.1%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 증시는 '弱' 펀드는 '강'

### 금융시장 불안 투자자 초조

유가의 '고공행진' 등 대내외 악재들로 인해 국내증시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향후 시장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펀드 열풍'을 몰고온 해외 펀드의 수익률이 올 들어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은행권이 관한 국내외 펀드도 대규모 원금손실을 보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국내증시 곳곳에 악재 - 체력 급속 약화=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증시는 유가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겹치며 4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3월17일 1,574.44로 저점을 찍은 후 5월19일에는 1,885.37까지 올랐지만 최근 다시 1,700선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또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물론, 고객예탁금과 위탁자 미수금 등 증시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다.

지난 20일 현재 고객예탁금은 9조7천292억원으로 4월(11조223억원), 5월(10조307억원) 등에 이어 2개월째 감소했다. 고객예탁금은 고객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놓은 돈으로 증시 수급의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국내·외 펀드 수익률 '군두바질' =해외펀드들도 올 들어 글로벌 증시의 조정 한파속에서 수난을 겪고 있다.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23일 현재 설정액 10억원 이상 해외 주식형펀드 763개의 연초 대비 평균 수익률은 -15.92%를 기록했다. 지난해 해외 주식형펀드의 1년 평균 수익률이 30.1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펀드본의 지역별 중국펀드와 인도펀드를 비롯한 주요 신흥시장의 수익률이 급락했으며 글로벌펀드와 유럽, 북미 등 선진국펀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권유한 국내의 주식형 펀드들도 대거 원금손실을 냈다. 지난 24일 현재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이 지난해 하반기에 많이 판매한 펀드 5개씩, 총 20개의 6개월 수익률이 -20%가 넘는 펀드가 6개에 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공공주택 분양가 2~3% 내린다

### 7월 말부터 공공택지 조성원가 5% 낮춰

7월 말부터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가 5%가량 싸져 장기적으로 볼 때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2~3% 가량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간접비 인정을 줄이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이미 국토부가 공공택지의 택지비를 20%가량 낮추겠다고 밝힌 내용의 일부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공공택지비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10개 항목 중 직접인건비의 경우 지금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사업을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되지만 개정안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으로만 한정하

도록 했다. 또 기타 비용 항목은 나머지 9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잡다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등 3개만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후속작업으로 항목별 비용의 산정방식(고시)을 변경하면 공공택지의 택지비가 지금보다 5%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재벌 '몸집 키우기' 경쟁 5년새 계열사 150개 늘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을 줄였던 대기업들이 다시 계열사를 크게 늘리는 등 확장 경영에 나서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자산총액 상위 10대 그룹(민영화된 공기업 제외)의 계열사는 459개사로 5년 전인 2003년 6월2일에 비해 149개사(48%) 늘었다.

자산총액 1위인 삼성그룹은 상호출자에 제한을 받는 계열사가 63개에서 59개로 줄었지만 나머지 10대 그룹은 모두 늘었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가 26개에서 38개로 늘었고 SK그룹도 59개에서 83개로 증가했다. LG는 그룹 분할 전인 2003년 6월에 계열사수가 50개였으나

분할 이후 LG그룹(37개)과 GS그룹(59개), LS그룹(23개)을 합한 계열사가 119개로 늘어났다. 이 밖에 롯데그룹(35개→47개), 금호아시아나(15개→53개), 현대중공업그룹(6개→10개), 한진그룹(23개→30개), 한화(33개→43개) 등 10대 그룹은 대부분 계열사가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기업을 인수하거나 신설함에 따라 계열사수가 늘었다"며 "이에 따라 재벌들이 사업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기업 '사회환원'엔 인식

### 순익 대비 기부금 비율 2%대로 감소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기부금은 되려 줄어 기업들이 이익의 사회 환원에 인색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세계 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이 지난해 매출 1조원 이상을 기록한 110개 상장기업의 기부금 지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기부금 총액은 2006년 1조1천267억원에서 지난해 9천948억원으로 1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32조2천890억원에서 38조1천896억원으로 18.3%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를 측정하는 '순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도 2006년 평균 3.5%에서 지난해 2.6%로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상장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기부금 관련 항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종업원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조사 대상 기업 중 기부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 삼성전자로 문화복지사업에 818억원, 불우이웃돕기에 138억원 등 전년 대비 4.2% 늘어난 총 1천825억원을 기부금으로 지출했다.

또 포스코(839억원), SK텔레콤(724

억원), KT(717억원), 강원랜드(554억원) 등도 500억원 이상을 기부금으로 지출해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음에도 기부금은 오히려 줄어 사회적 비판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 조선·반도체 '맑음' 섬유·건설업 '흐림'

올 하반기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업 등은 호조가 예상되는 반면 섬유, 섬유, 건설업 등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업종별 단체 자료를 취합한 '주요 업종의 2008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조사' 결과 가격 상승과 수급안정화가 기대되는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화학, 조선업 등은 하반기 전망이 밝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반면 고유가에 따른 유류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는 유류환급금 등 정부대책에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고 섬유는 특별한 상승요인이 중국·인도 등 후발국의 단가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등 하반기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감소, 미분양, 건축자재 가격 급등의 3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도 민간, 공공부문 모두 부진한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기계업종은 건설경기 부진과 중국산 기계, 부품류의 확대로 내수부문에서 상승세가 꺾일 전망이다. 철강은 최대 수요산업인 건설산업의 침체로 고성장률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호주, 러시아, 중동 등 해외 자원대국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 전자와 가솔린 SUV 등 내수 신차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자동차는 하반기에도 협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하이닉스 기술협력 손잡는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등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국제 표준화, 장비·재료의 국산화 확대 등 3대 기술협력에 나서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 차세대 반도체 제품과 장비,재료 시장의 선점 등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 업체가 공동으로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3대 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해 9월부터 테라비트급 차세대 반도체(STT-R램)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2012년부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STT-M램을 중점 개발할 계획이다. STT-M램은 스핀주입 자화 반전방식 메모리로 비휘발성이지만 S램급의 초고속 동작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 삼성, 브랜드관리팀 신설 전략기획실은 이달말까지 해체

삼성그룹은 25일 이달 말까지 그룹 전략기획실을 완전 해체하고 사장단협의회를 가동하며, 계열사 업무 조정을 위해 사장단협의회 산하에 투자조정위원회와 브랜드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해산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4월28일 삼성전자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뒤 일반사원 신분이었던 이근희 회장은 7월1일자로 사원 신분마저 정리하고 대주주로만 남기로 했으며 '前 회장' 직함을 사용하지기로 했다.

삼성은 이날 오전 마지막 수요 사장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전략기획실 팀장급 임원들에 대한 계열사 배치를 완료했다. 이로써 삼성은 50여년 동안 이어져온 '회장-전략기획실-계열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 그룹경영에 종지부를 찍고 계열사 독립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앞으로 삼성은 계열사가 독립경영을 하되 사장단협의회를 통해 투자와 업무 중복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사장단협의회 산하에 투자조정위원회와 브랜드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



### 두바이 건설 주거단지 모형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막한 '2008 국제 아시아 부동산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두바이에 건설된 대규모 주거단지 모형을 보며 업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강일	연락처
(주)그린텔	KTF 동광주엠버스플러지 정규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6	042-223-4900
대훈	티이어 금융형 직입 하실분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7	011-9607-2186
해원에스티	경영기획 경력자	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6/27	062-958-7033
스텔스	넥스타이머 물류센터 사원	1600~1800	06/27	062-351-6052	
(주)화인코리아	생산관리/연구개발/기사 등 분야별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8	061-330-4523
에너그린(주)광주지점	공무/설비(생산) 유지보수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8	062-943-8802
(유)아름다운세종문고점점점	서적정리,캐셔 및 버리스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9	010-5114-0870
(주)호원	총무,부품개발,생산기술원,생산직,영어능통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6/30	070-7547-8304
(주)한영정보통신	SK텔레콤 대리점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6/30	062-251-6972
(유)대동 광주공장	(생산직/사무직/관리직)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959-1580
한백정보통신	2008년 하반기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30	010-2615-5883
우경산업	건설현장시공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954-3956
(주)서울항공여행사	여행 상담 및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웹디자이너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2	062-225-3636
정원교육문화	[광주/전남]교육직 관리자 및 교사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7/05	051-465-666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